

# 중영 SUNDAY

## ‘해킹 업무’ 국정원 현직 직원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

용인=오이석·박수철 기자  
oh.iseok@joongang.co.kr

국가정보원 직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과 관련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낮 12시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의 한 야산에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다. 당시 임씨는 운전석에 숨진 채 앉아 있었으며 조수석 앞과 뒷좌석에는 다 탄 번개탄이 남아 있었다. 조수석에서는 A4 용지 크기의 노트에 자필로 쓴 유서 3장이 놓여 있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 관계자는 “임씨가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국정원 직원이나”는 질문에 “직책이나 구체적인 업무를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분야에서

유능한 전문가라고 하던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기관 고위 관계자도 “유서에 업무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며 “유가족과 국정원장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보안 프로그램 관련 업무해와 차량서 번개탄 피워 자살 추정 가족·국정원에 “억울” 글 남겨

임씨는 국정원 본원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서 3장에는 가족·부모·직장(국정원)에 각각 전하는 내용이 들어 있으며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최근 국정원의 해킹프

로그램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확산되자 심한 압박감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을 유서에 담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을 위해 했던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앞서 지난 14일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 병호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각각 10인용씩 20명분의 RCS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으로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과거와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그렇다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 서울대 행정대학원-중앙SUNDAY 공동기획 대한민국 불평등 리포트 <상>

## 국민 10명 중 9명 “나는 중간 이하의 계층” 대구시민 계층 의식, 광역단체 중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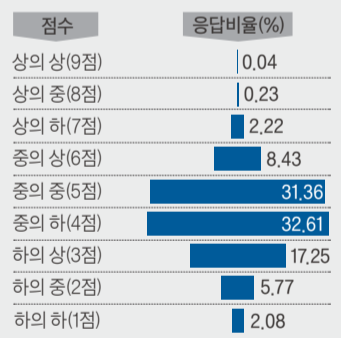
대구=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지난 14일 오후 2시 대구시 서문시장. 한산한 수선골목의 옷가게엔 짐뭉치 위와 씨름하는 선풍기 소리만 들렸다. 텅 빈 가게를 지키던 차팔문(59)씨. “손님이 북적거리야 할 시간에 개시도 못한다 아입니까.” 전기세 아끼려고 에어컨도 못 켜는 그의 하소연에 맞은편 가게의 이풍시(50)씨가 맞장구를 쳤다. “내 신경질 나 죽겠다. 일할 데가 없어가 총각들은 다 판데 가쁘고 없다. 벌어야 장가를 가는 데 누가 올라가나. 서울·부산·대구 3대 도시라카더이, 아이다. 이제 대구는 10대 도시도 못드간다.”

대구 경제의 축이었다는 서문시장에서만 이런 불만을 들은 것은 아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회사원 고모(38)씨도 열을 올렸다. “섬유 하던 사람들 다 죽어뿌고, 대구 기업 뭐가 있다. 울산은 현대 잠바 입고, 포항은 포스코 잠바 입고, 우리는 입을 잠바가 없다. 최악이다. 최악.”

대구의 2013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815만원이었다. 대구를 이끌던 섬유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이래 20년 가까이 이어온 침체

### 당신이 생각하는 현재의 사회 계층은



다. 전국 1위인 울산(6042만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주관적 평가도 저조하다. 전반적인 경제 수준과 함께 월 소득·금융재산·주거·교육 등 4개 분야에 대한 스스로의 계층 점수를 ‘1점(하의 하)’부터 ‘9점(상의 상)’까지 매기도록 한 결과 대구 시민은 스스로에게 3.2538점을 줬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점수다. 소득·금융재산·주거·교육 수준에서도 모두 ‘하의 상’인 3점대 초반에 머물러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센터장 금현섭)가 지난해 실시해 최근 통계 분석을 마무리한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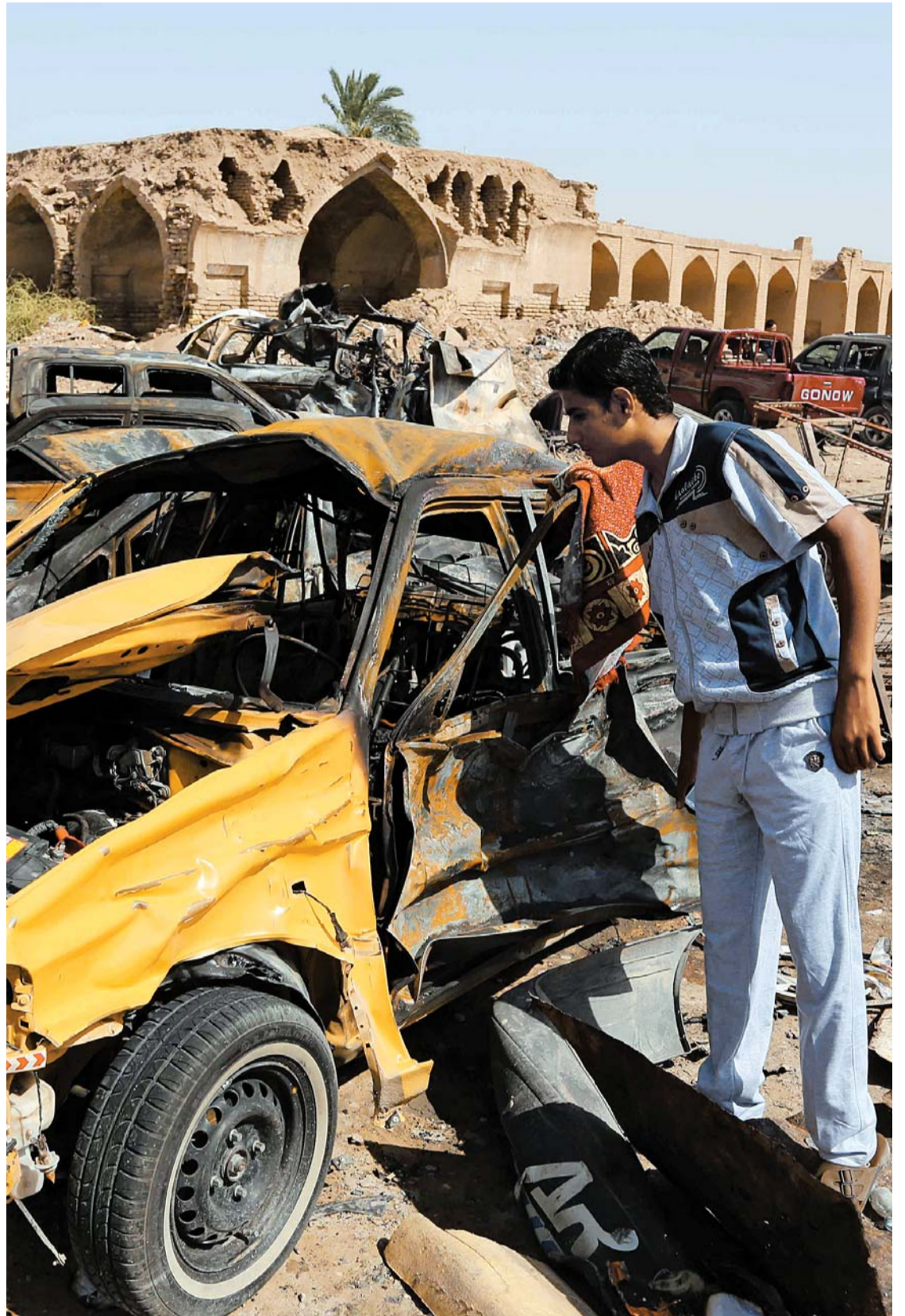
민인식조사’ 결과다. 전국 성인 남녀 5940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 어디에 속하는가’를 설문한 조사다.

이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계층 평가 1위 지역은 울산(4.7139점)이었다. 광주(4.4756점)·경기도(4.4530점)·제주(4.4073점)가 그 뒤를 이었다. 울산은 4개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가 나왔다.

나머지 지역은 분야별 점수가 오르내렸다. 금융재산 면에선 울산(4.2566점)·부산(4.0309점)·충북(3.9992점) 순이었다.

하지만 전국 어느 지역, 어떤 분야에서도 계층 평가 점수는 5점(중의 중)을 넘지 못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중의 하(32.6%)’와 ‘중의 중(31.4%)’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89%는 자신을 ‘중의 중 이하’라고 생각했다. 상대적인 높낮이가 있을 뿐 국민들은 대체로 자신의 사회계층을 중간층 아래로 여긴다는 것이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산층과 불평등 인식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 정부에 역할 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4-5면



이라크서 차량 폭탄 테러... 100여 명 사망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이 끝난 17일(현지시간) 이라크 동부 디알라 주의 시아파 마을 칸 바니 사드에서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여 명이 숨졌다고 AP통신이 경찰과 병원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수니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는 트위터에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AP=뉴시스]



세계 최초의 여성 수중사진 작가 제나 할러웨이(42)가 한국을 찾았다. 인간에게 아직 완전히 허락되지 않은 물속 세상을 보여준 덕분에 패션계로부터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는 핫한 아티스트다. 영국의 컬렉터 찰스 사치는 그의 작품을 자신의 컬렉션에 추가했다. 물빛 캔버스에 형형색색 빛을 수놓은 사진은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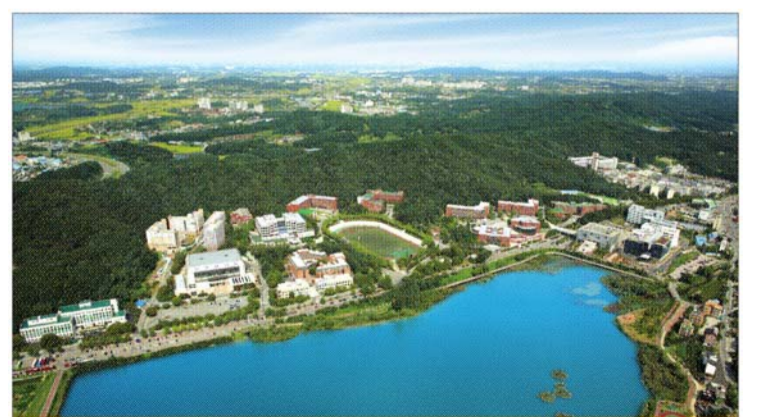
### knowledge & Science

지식·과학 섹션(8p) 오늘 함께 배달합니다



1부 1000원 / 월 5000원

정기구독 문의·고객센터 080-023-5005



### 바이오·메디컬 분야 특성화 및 글로벌 여학전문가 양성의 요람, 단국대 천안캠퍼스

-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 생명과학, 의·치·약학, 단국대병원, 치과대학병원 운영
  - 계열별 융합연구를 통해 BT분야 시너지 창출
- LINC사업(현장밀착형) 평가 3년 연속 최고점수 획득
- 10개 외국어 특성화 사업 실시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동, 몽골, 포르투갈어



## NIE 자녀·부모가 함께 보는 중앙SUNDAY만의 역사 NIE

중앙SUNDAY가 다음달 16일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에 앞서 이번 주부터 학생을 위한 역사 콘텐츠를 먼저 선보입니다. 과거 중앙SUNDAY에서 연재했던 인기 역사 칼럼을 토대로, 이와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실전 문제까지 풀어보는 새로운 형식의 지면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중고생뿐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성인 독자에게도 유용한 내용입니다. ▶14-15면



서울대 행정대학원-중앙SUNDAY 공동기획 대한민국 불평등 리포트 <상>

# TK 정권 연속 배출한 대구, 지역 침체 지속에 박탈감 커져

<대구·경북>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중앙SUNDAY가 공동 기획한 '국민인식조사'에서 대구 시민들이 느끼는 계속 박탈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경제 소외지역'으로 여겨지던 광주와 전남북에 비해서도 점수가 현저하게 낮았다. 대구 경제가 장기간 침체 상황인 점을 감안해도 지나치지. 대구 시민이자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그 원인을 분석했다.



이정우 교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대구와 다른 지역과 다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소의 조사에서 '나의 사회계층'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구 사람들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스스로를 최하로 평가했다. 소득·금융재산·주거·교육 네 분야 모두 최하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도 꼴찌다. 네 분야 골고루 상위권으로 대답한 울산 시

민들과 대비된다. 참고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울산이 전국에서 압도적 1위이고 대구는 20년 연속 최하위다. 울산과 대구의 차이는 세 배가 넘는다.

한국을 불평등한 나라로 인식하는 대표적 지역은 호남과 제주·강원 지역이다. 이들 지역 시민들은 '나의 사회계층'에 대해서도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며 우리나라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부정적 방향이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다. 이와 정반대가 울산이다. 울산 시민은 스스로 잘산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꽤 평등한 나라라고 인식한다. 잘살고 긍정적 태도라는 점에서 울산 시민들도 일관성이 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한 지역이 대구다. 대구 시민들은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면서도 우리나라 불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울산은 울산대로 긍정적 방향으로 일관성이 있고, 호남은 호남대로 부정적 방향으로 일관성이 있는데 대구 사람들

지역내 총생산 20년 연속 최하위 소득·금융재산 등 스스로 꼴찌 평가 삶 개선 없지만 TK 정권 지지 견고

의 대답은 도무지 일관성이 없다.

왜 대구는 이상한 대답을 하고 있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원인이 복합된 것으로서 심층 분석이 필요한데 대구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뽑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대구의 지지는 여전히 전국 최고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대구·경북에서 45%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33%보다 상당히 높다.

흥미 있는 자료가 하나 있다. 2006년 한국 사회학회에서 실시한 계층의식조사를 보면

대구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울산 다음으로 많은 전국 2위였다. 그런데 2014년에는 압도적 꼴찌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인가. 그것은 정권의 차이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은 '노무현 정부'였다. 박정희 정부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 5년을 제외하면 몽땅 영남 출신인데 부산·경남(PK)은 김영삼·노무현 대통령 재임 10년뿐이다. 나머지 40년은 대구·경북(TK) 출신이었다. 2006년은 어떤 해인가 하면 대구·경북이 대통령직을 세 차례 연속 놓쳤던 때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 TK 출신이 아니다.

2014년은 다르다. 드디어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TK의 계보를 이어가게 됐다. 그래서 15년 만에 찾아온 정권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을 것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에 따르면 대구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비율이 51.4%로 전국 최고로 높았다. 꽤 시간이 흘렀지만 경제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강한 배신감과 상대

적 박탈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출신이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도 대구 경제는 침체일로에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구 사람들은 의리를 중시하므로 정권에 대한 신뢰는 좀처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태도에 괴리가 일어나고 대담이 갈팡질팡한다. 대구는 한때 진보당의 조봉암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진보의 고장이었다. 지금은 보수의 아성이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는 전국 최고로 나타난다. '초·중·고 급식은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항에 높은 비율로 동의했다. 서울(48.5%)에 이어 전국 둘째로 높은 수치(46.3%)였다. 진보의 유전자도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대구 사람들이 이런 모순된 행동을 언제까지 할지, 새누리당을 언제까지 찍사할지 대구 사람인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대구가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다. 진보로 가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중도쯤이라도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대구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국민 사회계층 인식 속을 보니

## 국민 절반 “한국 사회, 하층 시민이 다수인 피라미드형”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대구시 북구엔 칠성동과 침산동에 걸친 넓은 공터가 있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11만 3061㎡(3만4000평)의 반듯한 땅은 1995년 제일모직 대구공장이 구미공장과 통합·이전하면서 남겨진 것이다. 역이 멀지 않은 도심인데도 땅은 수차례 개발계획이 번복되면서 20년 동안 방치됐다. 지금 이곳엔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9월 대구시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출범시킨 삼성그룹이 내년 말까지 창조경제단지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땅은 역할을 찾게 됐지만 폐허 같았던 공장 터는 대구에 잃어버린 시간의 상징이었다. 대구 시민에게 공장 이전은 1970~80년대 호황을 누리던 섬유산업의 종언과 같았다. 시민들은 그때부터 경제도 내리막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대구는 끊임없이 새로운 동력을 모색했다. 하지만 90년대 말 섬유산업 부활을 위해 추진한 '밀라노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산업구조 개편도 여의치 않았다. 대기업을 유치해 자동차 부품산업, 정보기술(IT), 바이오 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 했지만 성과가 미진했다. 그러는 동안 젊은이들이 도시를 떠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는 1만6000여 명. 서울에 이어 둘째로 많이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유출 인구 중 9000명 이상이 20~39세라는 사실이다. 2013년에도 20대 인구는 7000여 명이 줄어 전체 인구 감소분에서 61.4%를 차지했다. 장기 침체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해지면서 이 지역 정서는 착잡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대구에서 좀 더 두드러졌을 뿐 전국적인 현상이다.

상대적 소외감에 국민 스스로 하향 평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중앙SUNDAY가 공동 기획한 이번 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자신의 계층을 하향 평가하고 있었다. 89%가 자신을 우리 사회에서 '중의 중' 이하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은 꽤 두껍게 형성돼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중위소득 50~150%를 근거로 한 정부 추정대로 국민의 약 66%가 중산층이다. 왜 이런 간극이 생겼을까.



대구 서문시장은 섬유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시절 전국적으로 유명한 원단시장이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시장도 예전 같지 않다. 포목을 취급하는 상점의 상인이 누운 채 가게를 지키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소득이 주관적 계층인식 주요 척도 월수 510만, 자산 2억 돼야 '중산층' 정부가 규정한 중산층과는 큰 차이 전남·전북·제주 불평등 의식 높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산층에 대한 인식과 현실의 괴리다. 이번 조사에선 '자신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을 답해달라'고 했다. ▶세후 월 소득 510만원 ▶금융자산 2억5990만원 ▶매매가 3억7600만원의 34.9평 주택 보유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이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이런 주관적 기준은 자신의 사회적 계층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자신의 현실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스스로를 '중간 이하' 계층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런 결과와 정부의 중산층 기준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부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출한 중산층 월 소득은 211만~633만원이다. 기준 폭이 넓은 데다 설문 응답자가 생각하는 월 소득 기준의 최고치(대구, 636만원)·최저치(인천, 457만원)와도 동떨어져 있다.

금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통계와 체감의 괴리는 개념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중산층의 개념엔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측정과 평가는 문화·사회적 측면보다 소득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발표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진단 연구보고서'에서도 주관적 계층 인식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가구 소득이었다.

금 교수는 "자신의 지위에 대한 판단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준거집단에 비해 소득이 높으면 긍정적으로, 반대의 경우엔 부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선 월 소득 100만~199만원인 사람은 월 451만원으로, 400만~499만원인 사람은 월 516만원으로 중산층 기준을 내세웠다. 소득이 많아도 기준, 즉 준거가 높아 체감 계층이 낮아지는 것이다.

전반적인 하향 평가는 한국사회 구성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44.9%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소수의 상층 엘리트와 더 많은 중간층, 가장 많은 하층이 구성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인식했다. 20.4%는 상·하층만 존재하고, 중산층은 결여된 '1' 형태로 바라봤다.

소득에 대한 불평등 인식 가장 심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반응도 같았다.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불평등한 편이다'는 36.9%, '평등한 편이다'는 33.4%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대해 평가하라고 주문하자 '불평등'이 47.3%로 늘고 '평등'은 28.1%로 줄었다. 주거 수준에 대해서는 '불평등' 39.2%, '평등' 30.8%였다. 반면 교육 수준에 대해서는 '불평등' 32.1%, '평등' 36.6%였다. 소득의 불평등을 훨씬 심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우리 사회를 가장 불평등하다고 인식했다. 점수는 2,7689점으로 유일하게 3점을 넘지 못했다. 소득·주거·교육으로 나눈 항목에서도 각각 2,6322점, 3,0147

점, 3,4009점으로 가장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다. 이어 전남(3,7279점), 제주(3,8357점), 광주(3,9057점), 강원(4,0106점) 순으로 불평등하게 평가했다. 이들 5개 지역은 세부 항목에서도 일관성 있게 낮게 점수를 매겼다.

반면 울산은 평등 수준도 높게 평가했다. 전반적 수준에선 5,4764점으로 최고점을 찍고, 소득·주거·교육 수준에서도 고르게 긍정 평가했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가장 높은 울산이 한국을 평등하게 바라본 것처럼 개인 역시 소득이 많을수록 평등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월 소득 100만원인 응답자가 모든 항목에서 4.5점 미만의 점수를 준 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응답자는 두루 5~5.5점으로 평가했다.

여기서도 긍정·부정 평가는 상대적인 결과다. 수치로 따지면 응답자들은 한국을 그다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10점 척도 평가에서 '불평등 수준을 수용할 만하다'가 5점, '매우 평등하다'가 10점이었다. 울산 시민이나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이나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을 그저 '수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나의 사회계층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나 (1: 하의 하, 9: 상의 상)

전반적 수준	월 소득 수준	금융재산 수준	주거 수준	교육 수준	
1 울산	4.7139	인천 4.4625	울산 4.2566	광주 4.7567	광주 4.9691
2 광주	4.4756	울산 4.3738	부산 4.0309	울산 4.5729	서울 4.8242
3 경기	4.4530	경기 4.3353	충북 3.9992	서울 4.4829	울산 4.7577
4 제주	4.4073	광주 4.2599	대전 3.9725	충남 4.4783	전북 4.7160
5 인천	4.3608	서울 4.1869	인천 3.9451	인천 4.4536	인천 4.7072
6 서울	4.3368	충북 4.1473	서울 3.9401	경기 4.4504	충남 4.6548
7 대전	4.3134	대전 4.1307	경기 3.9254	부산 4.4241	부산 4.5727
8 충북	4.2390	부산 4.0742	광주 3.8580	대전 4.3706	경기 4.5459
9 부산	4.2298	제주 3.9904	제주 3.7431	세종 4.3135	대전 4.5292
10 세종	4.1676	경남 3.8604	경북 3.7012	전북 4.2145	세종 4.4746
11 전북	4.0997	전북 3.8072	강원 3.6228	충북 4.2005	제주 4.3906
12 강원	4.0631	강원 3.7697	경남 3.5663	경북 4.0850	충북 4.2828
13 충남	3.9729	경북 3.7280	충남 3.5554	제주 4.0162	경북 4.1979
14 경북	3.9349	충남 3.6130	세종 3.5271	강원 3.9541	강원 4.0568
15 경남	3.8549	세종 3.5397	전북 3.4134	경남 3.9056	경남 4.0189
16 전남	3.8128	전남 3.4828	전남 3.3313	전남 3.7794	전남 3.8756
17 대구	3.2538	대구 3.1581	대구 3.0923	대구 3.3332	대구 3.5492

우리나라의 사회적 불평등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나 (0: 매우 불평등, 5: 수용할 만한 수준 10: 매우 평등)

전반적으로	소득수준 측면	주거수준 측면	교육기회 측면	
1 울산	5.4764	충남 5.2354	울산 5.4025	울산 5.6580
2 부산	5.3571	울산 5.1667	충남 5.3571	서울 5.6060
3 서울	5.3263	부산 4.8521	부산 5.3482	부산 5.5192
4 충남	5.1230	서울 4.8414	서울 5.1406	충남 5.4584
5 경기	5.0422	세종 4.7830	경남 5.0474	경남 5.2092
6 경북	5.0384	경기 4.7169	세종 4.9443	경기 5.1892
7 경남	4.9658	경남 4.5820	경기 4.9087	세종 5.1389
8 세종	4.7301	경북 4.4870	경북 4.8022	경북 4.9846
9 인천	4.6800	인천 4.3178	인천 4.6514	대구 4.9508
10 충북	4.5255	대구 4.2635	대구 4.6409	대전 4.8118
11 대구	4.5092	대전 4.2136	대전 4.5120	인천 4.7729
12 대전	4.4453	충북 4.0809	충북 4.2576	충북 4.3083
13 강원	4.0106	강원 3.8208	광주 4.1760	광주 4.3050
14 광주	3.9057	제주 3.8129	강원 4.0461	강원 4.2499
15 제주	3.8357	광주 3.7709	제주 3.9766	제주 4.2245
16 전남	3.7279	전남 3.5643	전남 3.9089	전남 4.1967
17 전북	2.7689	전북 2.6322	전북 3.0147	전북 3.4009

중산층의 기준은 (4인 가구)

월 가구 소득 (세후)	금융자산 (주식·저축 등)	보유주택 및 거주 형태 (자가 기준)	보유주택 및 거주 형태 (매매가 기준)	교육 수준
510만6000원	2억5990만원	34.9평	3억7600만원	4년제 이상

지역별 중산층의 기준은

월 가구 소득(원)	아파트 평수	금융자산(원)	아파트 매매가(원)	
대구	636만	대구 39.60	울산 4억6963만	서울 5억9428만
울산	608만	울산 39.19	대구 4억6004만	울산 4억235만
경북	581만	경북 36.60	제주 3억2843만	세종 3억9296만
서울	558만	부산 36.02	경북 3억1595만	인천 3억8257만
광주	515만	세종 35.97	광주 3억550만	경기 3억7652만
경기	515만	광주 35.55	강원 3억528만	대구 3억5976만
부산	492만	서울 35.02	서울 3억218만	부산 3억3509만
세종	491만	경남 34.90	부산 2억4753만	제주 3억162만
제주	487만	인천 34.30	세종 2억3787만	경남 3억122만
강원	487만	경기 34.21	충북 2억3176만	충남 2억9079만
경남	484만	전남 33.89	대전 2억3108만	대전 2억8727만
전북	476만	강원 33.79	전남 2억1789만	광주 2억7196만
대전	475만	제주 33.60	경기 2억1697만	경북 2억7070만
전남	458만	대전 33.13	충남 2억1584만	강원 2억6006만
충북	457만	충북 32.87	전북 2억27만	충북 2억4476만
충남	457만	충남 32.52	경남 1억7245만	전남 2억2543만
인천	457만	전북 32.45	인천 1억7046만	전북 2억125만

어떻게 조사했나

# 전국 성인 남녀 5940명 일대일 면접 조사

김현섭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hyunsk@snu.ac.kr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의 '정부 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판단 아래 실시됐다. 국민의 삶의 질 수준과 국민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범위를 파악해 정부의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의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 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9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모집단이 상대적으로 작은 농촌 지역이 과소표집되지 않도록 표본추출 방식을 설계했다. 단단계 표본추출법을 사용하되, 1단계에서 시·도 및 시·군·구별 균등배분법을 적용해 농촌 지역의 표본을 일정 부분 균등하게 확보했다. 이후 2단계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인구비례추출을 적용했다.

농촌 지역 표본도 균등하게 확보  
저녁·주말 집중 조사로 응답률 높여

조사 방법은 일대일 면접 조사(face-to-face interview)였다. 면접 조사는 면접원에 의한 데이터의 신뢰성 저하, 응답률 제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았다.

첫째, 면접원의 실사 태도와 설문에 대한 이해도가 응답률과 설문 결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기관의 면접원 중 정부 역할, 시민 인식 태도 등에 대한 관련 조사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

둘째, 설문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저녁 시간대와 주말에 조사를 집중 진행해 직장인 등 재택 시간이 적은 층의 응답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동일한 가구에 최대 3회 방문을 시도하되, 3회 방문에도 조사에 실패하면 대체표본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조사 내용은 정부 성과에 대한 의견, 정부 지출과 범위에 대한 의견, 정치 참여와 행정 경험에 대한 의견, 가치관·사회현상에 대한 의견, 삶의 질에 대한 의견, 중산층과 불평등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됐다. 설문 문항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삶의 질 수준 측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의 표준화된 설문을 활용하는 등 각 설문 문항의 이론적 배경을 명확히 하고 널리 알려진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했다.

조사 진행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연구센터가 (현)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해 진행했으며 본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3%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대 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일반 대중에게서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 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경우 ▶인체 유래물 연구 중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 판단돼 심의 면제 통보를 받은 조사다.

real watches for real people

Oris Audi Sport Limited Edition II  
Automatic mechanical movement  
Titanium case with ceramic bezel  
Special linear display for the small second  
Limited to 2000 pieces  
www.oris.ch

Audi Sport  
Official Watchpartner

ORIS  
Swiss Made Watches  
Since 1904

오리스 판매처  
공익수입원 및 서비스센터, 밀림시계(주) (02)757-9866, A/S센터 직통 (080)757-9866, www.milimwatch.co.kr

직영점 모엔트 [롯데백화점] 소공동본점 지하1층 02-772-3181 / 창신점 1층 2143-1920 / 영등포점 2층 02-2164-5272 / 청량리점 1층 02-3707-1179 / 수원점 1층 031-8066-0193 / 중동점 1층 032-320-7012 / 필운점 2층 031-8086-9232 / 구리점 1층 031-550-7109 / 광주점 1층 062-221-1289 / 대전점 1층 042-601-2109 / 대구점 1층 053-660-3122 / 부산본점 지하1층 051-810-4075 / 센텀시 타점 1층 051-730-3281 / 광복점 1층 051-678-4039 / 동래점 1층 051-669-4192 / 울산점 1층 052-960-4533 / 창원점 1층 055-279-3180 [현대백화점] 안국점본점 1층 02-3438-6093 / 신촌점 2층 02-3145-2209 / 무역센터점 2층 02-3467-8797 / 워산 리테스점 1층 031-822-2829 / 충청점 1층 043-909-4148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1층 032-430-1555 / 센텀시타점 1층 051-745-1478 [AK플라자] 구로본점 1층 02-6923-2112 / 수원점 2층 031-240-1267 / 밀주점 1층 033-811-5525 [갤러리아백화점] 대전타임즈점 지하1층 042-720-6115

특약점 논현동 호신빌딩 1층(노블워치) 02-3442-6601 / 홍로3가 중앙상가 10호(노블워치) 02-745-8789 / 롯데월드몰 B1(FWS) 02-3213-4742 / 현대백화점 미아점 7층(헤시게) 02-2117-1755 / 대치동 은마 상가 1층(서울시계) 02-555-3218 / 신도림 테크노마트 지하1층(TM시계백화점) 02-2111-1120 / 강변 테크노마트 7층(타임21) 02-3424-7073 / 반포동 반포프라자 1층(신비파) 02-532-2121 / 장충단 로 굿모닝시티쇼핑몰 2층(타임갤러리) 070-8265-6528 / 종로 세운스퀘어 본관1층(정우상사) 02-2272-2688 / 토의동 피카디리몰라스 1층(정신사) 02-741-9678 / 수원 갤러리아백화점 1층(GG갤럭시) 031-221-4997 / 일산 장항동 웨스턴점 중앙1층(타임24) 031-931-5555 / 안양동(시계상사) 031-441-0158 / 청주 남문로2가 1층(복외치) 043-223-1333 / 천안 신무동 1층(알파오메가) 041-564-5465 / 대전 세이백화점 1층(글로벌타임) 042-257-7745 / 대구 동아쇼핑 1층(스위스) 053-252-8111 / 대구 동성로3가 1층(레프) 053-425-0157 / 광주 황금동 1층(시계아카데미) 062-233-9100 / 전주 롯데백화점 지하1층(세랑당) 063-289-3592 / 익산 주얼몰라스 2층(보옥당) 063-835-3039 / 순천 왕자동 1층(신보석) 061-725-3849 / 부산 창선동2가 1층(국제시계) 051-245-1230 / 부산 해운대 중동 1층(리브와치) 051-746-6112 / 제주 연동 1층(타이머) 064-745-3008